

# 목포시, 전국 최초 노선 공영화 도입 '공영버스' 운영

2021년부터 휴업·파업 등 불편 초래  
4개 권역 구분 민간위탁 혼합방식 채택  
사업자간 경쟁 유도·전면 운행중단 예방  
스마트 승강장 확충 공영서비스 제공

목포시가 목포만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의 출범을 알렸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영버스 삼학차고지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위탁사업자, 버스 운수종사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 공영버스 출범식'을 가졌다.

목포시 시내버스는 지난 2021년 버스회사 휴업 신청, 2022년 운수종사자 파업, 2023년 연료비 체납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큰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목포시가 해결해야 할 숙된 사업 중 하나였다.

시는 2023년 2월 시내버스 운행 재개 이후 근본적인



지난 7일 목포시가 '공영버스 출범식'을 열었다.

목포시 제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공영버스 체계를 도입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이 독점하고 있던 시내버스 노선권을 공영화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면적인 노선체계를 개편했다.

전체 노선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1개 권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3개 권역은 민간위탁하는 직영과 민간위탁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간 상호 보완과 경쟁을 유도하고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을 구조적으로 막는 공영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기반의 공영버스는 전국 최초이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선도적인 정책이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버스를 만들어 더욱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공영버스 출범과 동시에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발광다이오드(LED) 안내판이 부착된 버스운행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스마트 승강장 확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더 나은 공영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군민과의 대화 소통 군정 실현  
장성군, 13일까지 11개 읍면 방문

장성군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민과의 대화'는 2023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다. 올해도 김한중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복지·농업시설, 주요 사업현장, 기업체 등도 방문한다.

올해 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데 앞서 지난 6일 동화·황룡면, 7일 장성읍·서삼면을 방문했으며 8일·북하면, 9일 북아·북일면, 10일 삼서·삼계면, 13일 진원·남면 순이다.

읍면 발전토론을 새롭게 도입해 읍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불편사항, 분야별 건의사항 등도 폭넓게 청취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 목소리를 한층 깊이있게 군정에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섬김의 군정 추진으로 '기회와 성장의 2025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목포시, 지역 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40만원 제한  
서민경제 활력 목표

목포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목포사랑상품권을 10% 상향조정 판매하기로 했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특별 할인기간은 올해 1/4분기(1월~3월)이며 21억여원을 투입, 총 200억원(지류형 10억원·카드형 19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매한도는 40만원(지류형 10만원·카드형 30만원)까지다.

목포시는 목포사랑상품권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골목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 54개소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판매 금융기관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며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061-270-878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올해 상반기에 1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서민들의 가계와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년연속 행안부 불가안정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시상금 5000만원,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또한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시상금 1350만원을 수여받았다.

목포=정기찬 기자



곡성군이 겨울 한파에 대비해 곡성을 권역 30개소 경로당에서 1월 한 달 동안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곡성군 제공

## 곡성군, 동절기 한파대비 주민 건강교실

1월 한 달간 30개소 경로당 방문

곡성군은 겨울 한파에 대비해 곡성을 권역 30개소의 경로당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건강교실'을 1월 한 달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건강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인자인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의 한파 관련 질환을 알아보고 질환별 예방수칙 및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파 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상승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혈압·혈당·당화혈색소·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 건강상담과 투약 지도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파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노인들은 자율신경계 기능이나 혈관의 방어기전이 저하되

어 추울 때 혈관을 수축하여 열 손실을 감소시키는 보상반응이 낮아 외출 시 보온을 위하여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가급적 수시로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사항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61-360-8963) 및 해당 면 보건지소로 문의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예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곡성, 평생학습 정기강좌 학습자 모집

5개 분야 18가지 강좌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2025년 상반기 평생학습 정기강좌 학습자를 오는 2월3일까지 2주간 모집할 예정이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평생학습 강좌는 기술·기능, 음악·무용, 미술·공예, 생활체육, 기타(영어회화 등) 총 5개 분야 18가지의 강좌로 운영된다.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 모집은 현장 신청을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도입한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

는 수고를 덜어냈다. 온라인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수강하는 강좌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특히 2025년에는 왕초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신설되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현재를 누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평생학습 강좌는 신청·접수 기간을 거친 뒤 2월3일부터 6월20일까지 20주간 운영될 계획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 농촌지도분야 시범·지원사업 접수 함평, 31일까지 신청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총 51억 5400만원이 투입되며 영농지원 분야와 기술보급 분야로 사업이 진행된다.

영농지원 분야에서는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장기임대)'을 포함한 12개 사업이,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애호박 연중 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포함한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총 45개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과 단체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제출, 타당성 검토,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2월 중 열리는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 농가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함평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진일보 @j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lbo.com